

## 마태오 복음서 6장

### 올바른 자선

- 1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sup>1)</sup>

1) ”의로운 일“은 ”선행“, ”경건한 행위“를 뜻한다.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또는 ”의로운 일“은 세 가지 실천 사항에 특별히 충실함을 뜻한다. 곧 자선(2~4절), 기도(5~6절), 단식(16~18절)이다.<sup>2)</sup>

2)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인 곧 위선적인 ”의로운 일“을 경계하신다.

2.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 3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 4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sup>3)</sup>

1) 그리스 말에서 ‘어떤 역을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던 ”위선자“는 단순히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리스 말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패륜아’ 사악한 자’ 등의 뜻으로 쓰인다. 위선자는 다분히 하느님을 거스르는 악인이 된 소지자 있는 자로서, 때로는 정신적·영적 시각장애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잘못되고 비뚤어지기 쉽다.

2) 자선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칭찬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칭찬, 곧 상을 주신다.

### 올바른 기도

- 5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

---

1) 루카 16,15 :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76쪽, 각주 1.

3) 시편 139,2-3 :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 6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sup>4)</sup>

- 1)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데, "위선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기회와 장소를 이용한다.<sup>5)</sup>
- 2) "골방"은 본디 '광'을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내밀한 곳이다.<sup>6)</sup>
- 3)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이며 대화이다. 그러므로 보이기 위한 기도는 칭찬받지 못한다.

-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sup>7)</sup>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 8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 1) '빈말을 되풀이하다'는 '지절거리다', '중언부언하다', '말을 많이 하다'라는 뜻이다.<sup>8)</sup>
- 2) 간절함에서 나오는 말의 반복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이 들어주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곧 길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는 교만이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 위탁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이다.

## 주님의 기도(루카 11,2-4)

- 1)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기도는 당신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십사는 삼중의 청원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일련의 청원

---

4) 2열왕 4,33 : 엘리사는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안에는 둘뿐이었다. 그는 주님께 기도드린 다음, 이사 26,20 : 자 나의 백성아, 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걸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다니 6,11 : 다니엘은 임금의 그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의 집 옥상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5) 앞, 각주 5.

6) 위, 각주 6.

7) 코엘 5,1 : 하느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 네 입으로 서두르지 말고 네 마음은 덤비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너의 말은 모름지기 적어야 한다.

8) 앞, 76~77쪽, 각주 7 참조.

이 나온다. 이 기도문은 마태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서 각각의 다른 형태로 전승되는데, 루카 복음서의 것이 짧다. 청원이 마태오 복음서에는 일곱 개가 나오는데 루카 복음서에서는 다섯 개만 나오고, 두 복음서의 공통된 부분에도 둘 또는 세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이 두 기도문이 어느 것이 더 오래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해당 공동체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다르게 고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9)</sup>

- 2)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이며,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 1)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바르게 기도하라는 뜻이다.
- 2)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느님께서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과 당신의 부성적 사랑으로 사람 곁에 계심을 동시에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곧 '하늘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라는 부름말은 하느님께서 멀리 계심과 가까이 계심, 무한히 위대하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에게 대한 친밀감, 그리고 이 기도문이 청하는 내용을 절절히 필요로 하는 인간이 서 있는 이 땅과 완전함의 장소인 "하늘" 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sup>10)</sup>
- 3) 하느님의 "이름"은 성경 특히 전례문에서, 하느님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공손하게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거룩히 드러내다'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의 성성(聖性)에 더 이상 무엇을 보낼 수 없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널리 알리며 그분의 영광을 찬송함을 뜻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권능과 영광을 지니긴 준, 의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다.<sup>11)</sup>
- 4)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하느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 10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9) 위, 77쪽, 각주 10 참조.

10) 위, 각주 11 참조.

11) 위, 77-78쪽, 각주 13 참조.

- 1)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또는 시작된 이 "나라"가 빨리 드러나고, 또 온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십사 청한다.<sup>12)</sup>
- 2)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청원하는 것이다. "하늘"은 완전히 실현된 "하느님의 나라"이다. 이제 땅도 그러한 하늘의 모습을 따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sup>13)</sup>
- 3) "아버지의 나라"는 '은혜로운 나라'이며 '영광의 나라'이다.
- 4) 하느님의 뜻의 실현은 지금부터 하느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에 맞갖은 삶을 살아야 한다.

## 1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sup>14)</sup>

- 1) 예수님께서서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날그날 받은 만나로 살아갔듯이(탈출 16장 참조), 제자들도 그날그날의 양식을 청하라고 권유하시는 것이다.<sup>15)</sup>
- 2) 영성가들은 또 성체 성사의 빵,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청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12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sup>16)</sup>

###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 1) "잘못"은 사람들 사이의 법적·상업적 채무를 뜻한다. 이러한 빚은 채무자 자신이나 가족이 종으로 팔려 가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다. 여기서는 하느님은 채권자이시고 인간은 지불 능력이 없는 채무자라는 것이다. "잘못"은 하느님께 끼친 손상과 죄인의 가련한 처지를 드러낸다.

12) 위, 각주 14 참조.

13) 위, 각주 15 참조.

14) 잠언 30,8-9 :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요한 6,32.35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15) 앞, 각주 17 참조.

시편 104,14-15 : 가축들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가꾸도록 나물을 돋게 하시어 땅에서 빵을,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을 얻게 하시고 기름으로 얼굴을 윤기나게 하십니다. 또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돋우는 빵을 주십니다.

16) 에페 4,32 :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 2) "용서" 곧 하느님께 진 빚을 탕감해주십시오고 청한다. 이 '탕감'은 자기의 죄를 속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에 대한 의무와 형제들에 대한 의무를 밀접히 연관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우리 자신도 형제들을 용서할 것을 하느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밝히신다.<sup>17)</sup>
- 3)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함에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다. 남의 잘못을 용서함이 없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바르게 실천할 수 없다.

### 13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sup>18)</sup>

- 1) "유혹"은 "시험", "시련"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혹"은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하느님의 백성이 그분께 받는 시험이나 시련이 아니다. 이는 시련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겪는 사람을 사탄이 몰락시키려고 애쓰는 특별한 시련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혹"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혹 자체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고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 내기 힘든 큰 시련을 피하게 해주십시오고 청하는 것이다.<sup>19)</sup>
- 2) "악"은 어떤 추상적 악이 아니라, 인격적 악, 제자들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악의에 찬 능력을 지닌 존재를 가리킨다.<sup>20)</sup>

### 14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 15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sup>21)</sup>

17) 앞, 79쪽, 각주 19 참조.

18) 요한 17,15 :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시오고 빕니다.

2테살 3,3 :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19) 앞, 각주 20 참조.

1코린 7,5 :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테살 3,5 : 이러한 이유로 나도 더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티모테오를 보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노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20) 위, 각주 21 참조.

21) 에페 4,32 :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마르 11,25 :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콜로 3,13 :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크나큰 용서를 받았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인색하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 올바른 단식

- 16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 17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 18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sup>22)</sup>

- 1) 단식은 본디 모든 구원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마음을 온전히 여는 것이다. 그러나 위선자들처럼 보이기 위한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sup>23)</sup>
- 2) 참된 단식은 몸과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채우는 행위이며,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행하기 위해 힘을 얻는 행위이다.

##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루카 12,33-34)

- 19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

---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 야고 2,13 :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 22) 이사 58,5 :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나?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 유딧 10,3 : 유딧은 속에 입고 있던 자루옷을 벗고 과부 옷도 치웠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머리띠를 두르고서 자기 남편 느나제가 살아 있을 때에 입던 화사한 옷을 차려입었다.
- 이사 58,3 :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 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 23) 위, 79-80 쪽, 각주 22.
- 탈출 34,28 :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사십 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 다니 9,3 : 주님의 땅에서 그들은 살 수 없으리라. 에프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리라.
- 사도 13,2-3 :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sup>24)</sup>

20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1) 당시에는 집 벽이 진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벽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sup>25)</sup>

2)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곧 자선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 하늘에 쌓는 참된 보물이다.

**눈은 몸의 등불**(루카 11,34-36)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1) “맑다”라는 말은 “단순, 정직, 솔직, 순수”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여기서는 하느님과 그분의 법만을 향하여 눈길을 모으는 이의 단순함과 온전함을 뜻한다고 하겠다.<sup>26)</sup>

2) 눈이 맑으면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느님이냐, 재물이냐**(루카 16,13)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1) “재물”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힘을 지닌 존재로서 돈을 가리킨다.

2) 재물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24) 욥 22,24-26 : 먼지 위로 금을 내던져 버리게. 오피르의 순금까지도 개울의 돌들 사이로 말이네.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금이 되시고 자네에게 최상품의 은이 되실 것이네.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기쁨이 되시고 자네는 하느님께 얼굴을 들게 될 것일세.

야고 5,2-3 :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콜로3,1-2 :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25) 위, 80쪽, 각주 23.

26) 위, 각주 24.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재물을 선용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sup>27)</sup>

##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루카 12,22-32)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 1)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무심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로 표출되는 신뢰심을 말한다.<sup>28)</sup>
- 2) 걱정은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 걱정은 신뢰심이 없기에 온다.

26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새들을 당신 창조 질서에 따라 돌보신다. 하물며 창조의 꽃인 사람들 어찌 아니 돌보시겠는가?<sup>29)</sup>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28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자랑하지 못하였다.<sup>30)</sup>

30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 1) ”수명“은 그리스말로는 ‘키’(身長)을 뜻하나, 여기서는 문맥상 ”수명“을 가리킨

27) 마태 13,22 :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19,21-22 :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8) 위, 각주 27.

29) 욥 38,41 :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장만해 주느냐? 새끼들이 하느님에게 아우성치며 먹을 것 없이 헤매 돌아다닐 때에 말이다

30) 1열왕 10장과 2역대 9장 참조.

다.<sup>31)</sup>

- 2) 걱정한다고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듯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은 그리스말 페키스로 약 46센티미터가량 되는 길이의 단위이다.
- 3) 나리꽃은 들꽃이며, 길쌈은 옷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들녘에 핀 나리꽃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다.
- 4) 나리꽃은 심는 수고나 천을 차는 수고를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5) 모든 걱정은 믿음이 약함에서 온다. 그러니 "저는 믿습시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 주십시오."(**마르9,24**)라고 기도해야 한다.

**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sup>32)</sup>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sup>33)</sup>

- 1)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함을 뜻한다.
- 2)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는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곧 주어진 삶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 3) 오늘의 삶은 어제의 삶의 결과요, 내일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면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글게 하실 것이다.

---

31) 위, 각주 28.

32) 시편 37,4 :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네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이사 51,2 : 내 말을 들어라,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들과 주님을 찾는 이들과.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반석을 우러러보고 너희가 폐내 올려진 저수 동굴을 쳐다보아라.

33) 탈출 16,4 :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야고 4,13-14 :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